

# ‘성공한 패자’ 안희정·이재명 전국구 정치인 됐다

### 탄핵 정국 속 ‘文 대세론’에 밀리고 조직 싸움서 패배 차기 대선 주자·내년 지방선거·국회 진출 등 진로 다양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승리했지만 패자인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도 아름다우면서도 성공적인 패자로 기록될 만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선 안 지사와 이 시장은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급부상했다. 지역 정치인에서 ‘전국구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두 사람의 패배는 일단 당내 조직 싸움에서 밀린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박근혜 탄핵정국’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문재인 대세론’ 탓에 경선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문 전 대표 측에 줄을 서면서 안 지사와 이 시장은 캠프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3일 “이른바 조직을 민중이 있는 ‘프로’들이 경선 시작 전에 ‘문재인 캠프’에 합류하면서 ‘기술적인 운동장’에서 경선을 한 꼴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안 지사는 당내 최대 세력인 진노(진노무현) 출신 인사들 대부분이 문 전 대표 측에 합류하면서 캠프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선전한 것은 그의 신선감과 광복 행보 덕분이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인 이 시장은 조직면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 당내 기반이 전무하다시피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시장은 세 번의 순회경선 모두 당원이 주로 참여하는 순회투표에서는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대상인 ARS투표에서는 주목할만한 성적을 냈다. 이 시장은 호남권 경선 당시 대의원이 참여하는 순회투표에서 6.9%를 얻었지만 ARS투표에서는 19.7%를 확보했다. 충청권 경선에서도 순회투표에서는 2.7%를, ARS투표에서는 15.4%를 얻었다. 영

남권 경선에서도 순회투표에서는 7%를 확보했지만 ARS투표에서는 18.6%를 얻었다.

이 시장 측 관계자는 “호남·충청·영남권 조직이 전무했지만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것은 자발적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물론, 안 지사와 이 시장의 패배에는 전략적 실책도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안 지사의 경우 신선감과 패기로 경선 초반 욕일승천의 기세를 보였지만 ‘대연정’ 제안으로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특히 호남에서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촛불민심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앞서간 탓이라는 지적이다. 안 지사 측 내에서는 ‘경선 과정에서 하지 말고 본선에서 제안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시장은 촛불정국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리하며 기세를 올렸지만 그 이상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한계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즉, 국가의 지도자로서 안정감과 신뢰감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

이다. 다만, 대선 기간이 더 길었다면 충분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었다는 분석도 있다.

어쨌든 안 지사와 이 시장은 이 같은 정치적 성장으로 향후 정치적 행보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확보하게 됐다.

안 지사는 유력한 차기 주자로 올라서는 동시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 출마에도 힘을 받게 됐다.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국회 진출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 시장도 차기 주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 현재 야권 내에 유력한 경기도지사 후보를 찾지 못하는 측면에서 그의 정치적 존재감은 더욱 빛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비록, 경선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지만 최성 고양시장도 나름의 성과를 얻었다는 분석이다. 끝까지 완주해 대중의 눈길을 끌었고 토론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도 공격적인 질문으로 흥행을 기여한 점을 인정받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 민주-국민의당 난타전 가속 “박 사면 보수표 구애 작전” vs “아들 특혜 의혹 제2 정유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연일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이들의 ‘취업 특혜’ 의혹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사면 발언’ 논란을 놓고 강렬하게 맞섰다.

민주당 문 전 대표와 국민의당 당 안 전 대표의 ‘양강 구도’ 형성으로 양당이 피할 수 없는 일전을 불사하는 형국이다.

우선, 민주당은 안 전 대표의 사면 관련 발언을 물고 늘어졌다.

민주당 김영주 최고위원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 안 전 대표를 겨냥, “주말 사이 난데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란이 있었다”며 “이 자리에서 감정싸움이나 말꼬리 잡기를 하지 않겠지만 다음부터 실언을 하거나 오해를 불러오는 말을 하면 솔직히 해명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홍길 통합위원장은 전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돼 재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면서 “보수층 표를 얻기 위한 일종의 작전으로 그런 신호를 보낸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문 전 대표의 아들 문제로 역공을 취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한 방송 인터뷰에 나와 “문 전 대표가 어제 아들 취업 위원회에서 국민의당 안 전 대표를 겨냥, ‘주말 사이 난데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란이 있었다’며 ‘이 자리에서 감정싸움이나 말꼬리 잡기를 하지 않겠지만 다음부터 실언을 하거나 오해를 불러오는 말을 하면 솔직히 해명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한 방송 인터뷰에 나와 “문 전 대표가 어제 아들 취업 위원회에서 국민의당 안 전 대표를 겨냥, ‘주말 사이 난데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란이 있었다’며 ‘이 자리에서 감정싸움이나 말꼬리 잡기를 하지 않겠지만 다음부터 실언을 하거나 오해를 불러오는 말을 하면 솔직히 해명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제2의 정유라가 이제 문유라가 됐다”며 “그런데도 ‘마 고마해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산 대통령다운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본선행 예약’ 안철수, 孫·朴 끌어안기

### 캠프구성 공동 선대위원장 제안 등 검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에서 사실상 승기를 굳힌 가운데 경쟁자였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박주선 국회부의장과의 화합 및 공동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안 전 대표 측은 경선 초반부터 압도적 우위를 점하자 ‘경쟁’보다는 ‘관리’ 모드로 전환, 연설 등을 통해 손 전 대표와 박 부의장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언급하는 등 적극적인 배려에 나섰다.

당장 4일 충청권 경선이 마무리되면 안 전 대표는 후보 수락 연설에 앞서 손 전 대표와 박 부의장에 연설 기회를 먼저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본선 캠프 구성에 있어 손 전 대표와 박 부의장에 공동 선대위원장 직책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후보가 안 전 대표와 경쟁하는 사이였지만, 경선 후에 같은 캠프에서 활동하면 대외적으로 당의 화합 이미지를 내세울 수 있어 경선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당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야권의 거물급 인사로 꼽히는 손 전 대표나 호남 지역 영향력도 갖춘 박 부의장의 지원은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손 전 대표와 박 부의장 측은 아직 경선이 끝나지 않았기에 이후 행보에 대한 말은 아끼는 분위기다. 하지만, 경선이 끝나고 본선에 돌입하면 당 전체가 대

신 모드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선거 운동 지원에 나서지 않을 명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손 전 대표 측은 3일 “지금까지 손 전 대표는 남의 선거라도 발 벗고 도와주지 않은 적이 없다”며 경선

이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부의장 측도 5일 광주에서 호남 주도의 정권 교체를 강조하며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안 전 대표의 지지율이 최근 급상승하고

있는 것도 국민의당 내부 화합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손 전 대표와 박 부의장이 그동안 내세웠던 본선 연대론의 명분이 약화되고 안 전 대표의 자라론이 힘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뚫뚫 뚫뚫 정권 교체를 이뤄낼 것”이라며 “지지율도 오르고 당내 분위기도 좋아 화합의 강점이 민심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성금 다가온 대선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3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 대표와 최고위원을 뒤편으로 대통령 선거일까지 남은 일지가 화면에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 정운찬 “김종인·홍석현과 단일화”

### 전북 방문... “공동정부 구리 유승민과 최종 단일화”

대선출마를 선언한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3일 통합정부 구성에 동의하는 세력과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여소야대여서 통합 또는 공동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한 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회장과는 통합정부를 고려하고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 셋이 먼저 단일화를 한 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최종 단일화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셋과 유 후보가 참

여하는 ‘원샷 경선’을 하든지 여러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통합정부는 단일화 과정에서 탈락한 이들이 선거를 두고, 정권을 잡게 되면 의사결정을 같이하는 공동정부를 의미한다고 정 전 총리는 설명했다. 그는 다만, “국정농단세력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익산 원불교 총부를 찾아 경산 장승철 총법사를 예방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를 둘러봤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박지경기자·전북일보 박영민기자

## 반기문 팬클럽, 안철수 지지 선언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의 팬클럽인 ‘반딧불이 국민포럼’이 3일 국민의당 유력 대선후보인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하기로 했다.

김성희 반딧불이 회장은 이날 “회원들 간 논의를 거쳐 안 전 대표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일요일인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 향후 활동 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산언화 세력으로 대표되

는 진박세력, 민주와 세력인 전문세력의 이전투구 속에서 우리나라는 20~30년간 한 발짝도 못 나갔다”며 “이젠 미래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때가 됐다”는 데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반딧불이의 안 전 대표 지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반딧불이 임원진 일부는 이날 초 안 전 대표 측 인사를 만나 지지 의사를 표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 NPL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 NPL(근저당권)투자는?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 광주시 광산구 남산동 733-1, 733-6
  - 토지 : 총 1,370㎡
  - 용도 : 주거지 1층 건물 철거조건
  - 6억5천만원
- 전남 나주시 다시면 월대리 587-27외 3필지
  - 토지 : 총 5,524㎡
  - 용도 : 주거지 2층
  - 8억3천만원
- 전남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579-49외 3필지
  - 토지 : 총 866㎡
  - 용도 : 나대지
  - 2억5천만원 (교환가능)

경매, NPL채권 배우면서 투자 가능하신 분 3명 모집  
(2017년 3월 6일 ~ 2017년 3월 30일 까지)

##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지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빛,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